

광주 36도 ... 아스팔트가 '이글 이글'



광주-전남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19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시민들이 뜨겁게 달궈진 도로를 건너가고 있다. ▶폭염 관련기사 3·7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더위 먹은 닭 체온 낮춰라” 대형 환풍기 가동 “양식장 수온 27도 지켜라” 그늘막 치기 총력

르포 - 나주 산란계 농가·여수 우럭 양식장 '폭염과의 전쟁'

양계장 분무기로 안개 뿌리고 양식장 물고기에게 산소 공급
현대삼호중 근로자들 달아오른 철판 위에서 작업 '비지땀'

“닭은 땀샘이 없어요. 급작스럽게 온도가 오르면 체온조절이 안 되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보통 때보다 폐사율이 3~4배 높아져요.”

19일 오후 3시 나주시 한 산란계 농장.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열기에 양계장 건물 안팎은 뜨겁게 달궈졌다. 계사 지붕과 주변에는 스프링클러가 끊임없이 물을 뿌리고, 계사 안에는 안개 분무기와 대형 환풍기 20대가 쉴 없이 가동됐다.

산란계 15만 마리를 사육하는 김양길 씨는 “아무리 무더워도 바람이라도 불면 숨쉬기가 한결 편한데 닭들도 마찬가지”라며 “안개로 열을 식히고 대형 환풍기로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해 체감온도를 낮추고, 비타민제를 투입해 닭들의 생체리듬을 보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염이 가장 무섭다”며 “사육비는 오르고 생산성은 떨어

어지기 때문”이라고 한숨 지었다. 폭염이 지속되면 산란율이 10%가량 떨어지고, 계란 품질도 한 단계씩 낮아진다고 했다. 사람도 더위를 타면 입맛이 없듯 닭들도 마찬가지여서 사료는 안 먹고 물만 먹는단다. 당연히 계란 무게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체력도 바닥이 나면서 폐사율은 보통 때보다 3~4배 높아진다.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생체리듬을 보강해주는 영양제를 투입한다. 대형 환풍기를 24시간 돌릴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도 평소보다 3배 가량 상승한다.

이날 오후 2시 여수시 신월해역 우럭 양식장. 섭씨 33도를 기록한 이날도 그늘 한 점 없는 0.9ha 규모의 양식장에는 쏟아지는 태양과 바닷물에 반사된 복사열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여수 잠수기조항 어민장과 경도 사이에 위치한 이곳 양식장은 좁

은 해역과 얇은 수심 때문에 다른 양식장에 비해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어민들은 일터에서 굶어진 손으로 물처럼 쏟아지는 땀방울을 연신 훔쳐내며 우려와 땀 등 물고기들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산소공급과 차양막 정비 작업에 한창이었다.

양식장 수온을 보여주는 온도계는 27도를 가리켰다. 수온이 28도 이상 상승하면 물고기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어 집단 폐사 등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28도가 넘는 고수온현상으로 발생한 피해규모는 여수 신월해역과 돌산 우두해역 양식장 2곳에서 2억여원에 달했다.

여수시도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고수온 대비 재해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신월해역 우럭양식장을 비롯해 고수온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양식어가에 그늘막 788개와 액화산소 116대를 지난 6월부터 공급하고 있다. 시는 폭염이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 서남권 최대 조선소인 영암군 삼호

읍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선 현장 작업자들이 밭고대로 '불판' 위에 앉아 용접을 했다. 건조 중인 선박 위 철판 온도는 지상보다 15도 가량 높은 45도를 훌쩍 넘어섰다. 땀방울이 절정에 오를 때면 섭씨 60도를 넘는다. 철판 위에 계란을 깨뜨리면 그대로 반숙이 될 정도다. 선박 위 작업자들은 더운 날씨에 용접봉까지 겹겹이 끼이고 불꽃 작업을 했다. 폭우라도 내린 듯, 뜨거운 땀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이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식염정과 음료로 갈증을 풀며 일을 한다. 갑판 위에선 그늘막과 천막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갑판 아래 밀폐된 탱크 안에서 작업하는 이들은 숨이 턱턱 막힌다. 곳곳에 불꽃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공기를 주입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흑서기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이 기간 특별히 점심을 원기보장에 좋은 보양식으로 메뉴를 구성하는 등 작업자들을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法,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희생자 1명 당 위자료 2억

중앙지법 4년만에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7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 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원가량이다. 전체 청구 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부모와 형제자매, 조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 희생자의 일실수입까지 계산해 최대 6억

8000만원까지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대체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지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인구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에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과 세월호 선원들,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 받은 김영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판결 등을 근거로 이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固縛)단단 고정 시킴)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병도 靑수석 광주·전남 방문 자치분권 의견 수렴

지역 현안과 대선평약 점검 등을 위해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등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다.

한 수석은 20일 오전 광주시청을 방문해 이용섭 시장과 면담을 한다. 광주시는 이 시장과 정중제 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어 한 수석에게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할 계획이다. 오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에 대한 의견과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있는 한 수석은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수석은 이날 오후 전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현안 건의를 듣고 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와 관련 실국장은 간담회를 열고 한 수석에게 무안공항 활성화와 문제,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등의 지역 현안 해결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 수석은 이어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의정단과 인사를 나누고 지방정부와의 소통에 나선다.

이에 앞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공약 점검단은 19일 전남 영암·해남 관공례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일명 J 프로젝트)' 구성지구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 공약 점검단은 이날 전남도와 일선 시·군 현장을 방문해 대통령 지역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